



## [지속가능] 우유도 PET병 시대로 변화 중

### - Amcor社, 차별화된 100% 재활용 페트 용기 활용 전략 소개 예정



우유 용기도 지속가능 컨셉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포장재 기업인 암코어가 PET 우유 용기로 유제품 포장분야의 일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암코어는 오는 2월 16일(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 개최되는 웨비나를 통해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패키징 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암코어는 180ml부터 1.8 l 까지 다양한 크기의 PET 용기와 무균화 공정인 ESL(Extended Shelf Life) 시스템을 활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맛을 극대화하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유통기한을 보장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가가치 유제품, 대체유제품과 식사대용식의 1인용 소포장이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페트(PET) 용기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가족화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간편하고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유제품 패키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포장재보다 가볍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PET 용기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PET 용기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고, 다른 포장재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한 PET 용기를 100% 재활용한 용기(PCR-PET)를 상용화해 지난 4년간 연간 1억 파운드(약 4만 6천톤)의 용기를 유통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plasticstoday.com, 1월 26일자>

##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 1% 증가 전망 - 英 AHDB 발표

### -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및 식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주요인



올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식품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며 놀라운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량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아져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이 2019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원유생산국의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나 직접 구매를 통해 유제품 소비가 유지되고 원유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와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량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산량이 전망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보급되며 경기와 식품 서비스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 원유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남아메리카의 농가 수익과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thecattlesite.com, 1월 27일자>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